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폭염과 장마와 태풍의 소식을 들으며 교회들과 동역자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은 8월이지만 한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선선한 기온입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 때문에 누렇게 말라버린 풀들에 누런 흙먼지가 계속 쌓이고 또 쌓입니다. 척박한 이곳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지나온 소식을 전합니다. ♥

◆ 한인교회 사역

언어를 배우는 당분간은 이곳 티후아나에 있는 한인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이 곳 한인교회 목사님은 오래 전에 선교사로 파송 받아 오신 분으로 한인교회 사역도 하시지만 현지인 교회를 도우며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목사님의 장모님과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교회 사역을 하시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 교회 사역에 신경을 잘 못 쓰고 계셨는데 제가 현지인 교회에 매주 출석하며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권하셨습니다.

한인 교회에서는 5주가 있는 달의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결된 교회 사역과 현지인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 집을 구하다.

지난번 소식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로사리토의 선교관에서 나와 이제는 티후아나에 있는 집을 1년간 계약하고 지난 6월 말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로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바뀌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이곳에 갑작스럽게 집이 구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층에 부엌과 방이 2개 있고, 2층에 큰 방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집이 구해져 저희의 삶이 보다 더 안정되어 겠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한인교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이곳 한인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름성경학교를 수년간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여름성경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하였지만 지원한 사람은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딸들인 하진이와 하은이였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한 아이들이 13명 정도 함께 모여 말씀듣고 예배하고 물놀이도 했습니다. 모든 행사는 잘 마무리 되었고, 오랜만에 교회에서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가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땅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계속 적으로 말씀으로 자라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 캠프 사역에 동참

이곳 티후아나에서 수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오시는 저희 GP 선교사님의 여름 캠프에 3일간 동참하여 섬겼습니다.

많은 멕시코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필요하고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비자 발급과 차량 구입을 위한 기도

그동안 기다리던 비자가 드디어 발급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에게만 비자가 있고, 이제 그 비자를 가지고 아내와 아이들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비자가 생겨서 이 곳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제 명의로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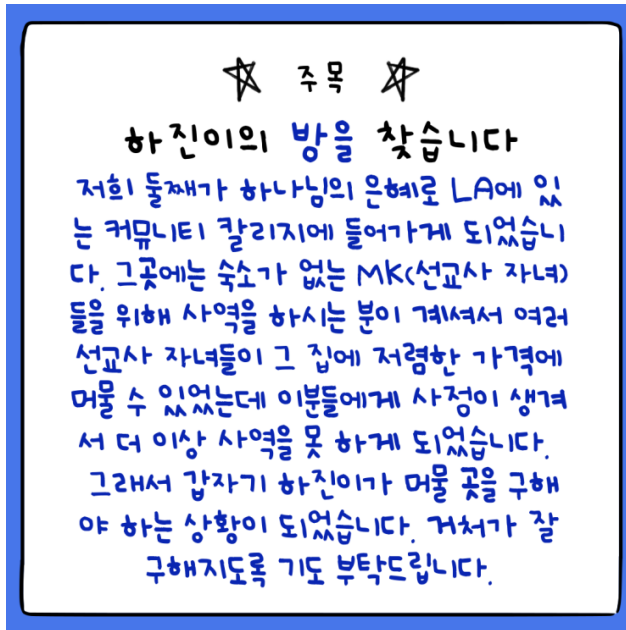
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인교회 목사님 차를 빌려 타고 있는데 좋은 차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곳에는 워낙 불법과 속임수가 많아서 정말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차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미주 후원교회 방문

지난 6월에는 미주에 있는 영생장로교회와 필라델피아 사랑의 교회에 방문하여 간략한 선교보고와 더불어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감사한 얼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그로 인해서 선교 사역도 더욱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하은 하민이는 검정고시를 하기로.

하은이는 이번주에 18세가 됩니다. 한국으로는 고3이고, 이곳에서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현지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 보았지만 아이들이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아이들은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제가 아이의 학창시절을 빼앗아 버린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잘 따라주고, 이해해주는 아이에게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잘 찾아서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큰 아이 하연이는 오는 9월에 이곳 멕시코로 와서 직업을 구하려고 합니다.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연이를 위해서도,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할 하은이와 하민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언어습득을 위한 지혜를 주소서.
- 한인교회 사역과 현지인 교회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튼튼하고 사고 없는 좋은 차를 잘 만날 수 있도록.
- 하진이 지낼 수 있는 방을 주세요(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 저희 모두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후원계좌 990-090819-582 하나은행**  
(GP) 이병호 / 최형진

☉  
☆☆☆☆


선교사역에 함께 하기

# 월1만원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선교사역은 누군가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든든한 빌립보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Click here to support 이병호♡최형진 사역 소식  
안녕하세요. 이병호, 최형진 선교사입니다.2010년부터 필리핀에서 대학...  
[go.missionfund.org](http://go.missionfund.org)

